

주차 고민 없는 '스마트 주차장' 시동

익산시, 유료공영주차장 10곳에 인공지능형 통합 운영 도입
스마트폰 이용해 실시간 주차 공간 확인·요금 사전 정산 등



익산시가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유료 공영주차장 10개소(750여 면)에 인공지능형 통합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양경진 익산시 건설국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이 다음 달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주요 기능은 △내 주변 주차장 위치와 실시간 주차 가능 공간 안내 △최적의 주차장 추천 △사전 결제로 신속

출차 △미납요금 확인과 간편 결제 △모바일 대리주차 예약 등이다. 대리주차 예약의 경우 익산역 인근에 있는 익산역 공영 주차타워와 송학 공영주차장,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3곳에서 시행된다.

또한 월 단위 정기권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돼 장기 주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상가 이용객을 위한 주차 쿠폰 구매를 추가 운영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주차장에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차량의 입·출차를 자동 인식하고, 실시간 수집된 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첨단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토대로 사고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다음 달 내로 스마트 주차장 사업의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오는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영등1동 공영주차장 △영등2동 공영주차장 △모현동 제1공영주차장 △모현동 제2공영주차장 △모현동 제4공영주차장 △문화 공영주차장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송학 공영주차장 △익산역 공영 주차타워 등 10곳이다.

시는 향후 모든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체계적인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경진 국장은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도시 전역에 도입되면 시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 고도화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익산을 최첨단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모색 박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 대응



익산시는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지난 1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공모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강영석 부시장을 비롯해 김영희 복지교육국장 등 관련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전북 라이즈 사업 설명 △익산시·대학 라이즈 협력 추진 경과 보고 △동행 협력 지역발전 과제 등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라이즈 사업은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대학의 성장과 지역의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역 대학과 함께 협력 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를 위해 부서별 실무회의와 대학 간담회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라이즈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을 조정·논의해 왔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학 측에 전달한 후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공동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 중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대한장애인 트라이애슬론 연맹, 익산에 둥지

국제 철인3종 경기장·장애인 체육시설 보유·최적 훈련·대회 개최지

대한장애인 트라이애슬론 연맹이 익산을 거점으로 삼고, 종목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3년 창립한 대한장애인 트라이애슬론 연맹은 지난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정 단체 승인을 거쳐 지난 2월 정식 가맹 승인을 받았다.

연맹의 이번 입지 선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익산에는 국내 유일의 상시 국제 철인3종 경기장이 위치해 있다. 또 반나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체육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연맹은 앞으로 2025 하계 강화훈련, KPC 피라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심판 강습회 등 다양한 대회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익산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게 되면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선수단 및 관계자 방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연맹 유치에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견인하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산북천 유역 침수 예방 대책 본격화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 지구별 침수 방지 종합계획 수립... 사업비 2175억 투입·2029년까지 추진

익산시가 산북천 유역의 반복적인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23년(하류부) 연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북천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총사업비 2,175억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대조지구 재해예방사업(총사업비 548억원)'은 올해 국비가 확정돼 오는 11월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연동지구 재해예방사업(총사업비 550억원)'은 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으며, 예산을 확보해 실시설계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양경진 건설국장이 익산시 산북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마스터플랜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는 연동제수문 수리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숙원인 '난포교 재가설' 사업도 순항 중이다. 이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협력해 추

진한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산북천 수해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33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 있으며, 오는 5월 착공 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산북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경진 건설국장은 "산북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장기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K-관광섬, 봄맞이

온라인(SNS) 행사 개최

군산시가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군산 K-관광섬(고군산군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봄맞이 사회관계망(SNS) 홍보 행사를 20일부터 개최한다.

행사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월별로 진행되며 군산 K-관광섬 인스타그램(gunsan_k_island/군산 k-관광섬) 팔로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k-관광섬(말도, 명도, 방축도) 초성 맞추기 퀴즈 이벤트가 열리는데, 군산 k-관광섬 인스타그램 팔로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종료 후에는 참여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4월에는 14일부터 18일까지 'K-관광섬(고군산군도) 신춘문예' 주간이 운영된다.

K-관광섬과 고군산군도를 주제로 유행하고 재미있는 30자(띄어쓰기 포함) 이내의 짧은 시를 창작해 댓글로 남기면 된다. 당선작은 댓글 '좋아요'의 수 등을 기준으로 30명을 선정하며, 상품으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5월에는 K-관광섬 N행시 백일장이 대미를 장식한다. 참여자는 주어진 키워드로 센스있는 N행시를 작성하면 응모 가능하다. 3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번 홍보 행사와 함께 고군산군도와 K-관광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면서 고군산군도 및 K-관광섬의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대면 결재 알림

시스템 운영 대상 확대

군산시가 대면 결재 알림 시스템의 운영 대상을 기존 시장, 부서장에게 국·소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대면 결재 보고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부속실 혼잡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되었다. 시는 도입 후 효과를 보고, 운영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3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